

에 응하느라 언제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지쳐버리고 말지요. 그럼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자료집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 반응들에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지, 왜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 저희가 고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고 피로워하는 이들에게, 답답해하던 이들에게 작은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감히 은근히 가져봅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은 사회대의 여러분들께 이런 지적들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보여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책자가 '자치규약 자료집'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달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료집을 읽기 전에

이 자료집을 구성하기 위해 저희는 현재 공개된, 그리고 공개하기로 합의된 몇 가지 사건들을 그 주요 자료로 삼았습니다. 올 한해 연세대학교 내에서 일어난 두 건의 스토킹 사건, 즉,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스토킹 사건과 국문과 대학원생 K씨 스토킹 및 성폭력 사건, 그리고 99년 신문방송학과 고학번 M.T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신문방송학과 내 K 밴드에서 일어난 H군 언어 성폭력 사건, 신문방송학과 과방에서 일어난 P군 언어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 동안 사립지기 Beyond 게시판에서 일어난 논쟁들과 학내에서 발간된 다른 성폭력 관련 자료집들, 오늘의 책 성폭력 사건과 98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일어났던 일명 고시동 사건 논쟁들, 통신상의 여러 게시판들의 내용을 참고로 이 자료집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사건의 개요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스토킹 사건(이후 철학과 스토킹 사건)

피제소자 A씨는 지난 1999년 5월 경 같은 과 동기인 제소자 B씨에게 구애의 내용을 담은 편지와 꽃을 전달한 이래, B씨가 여러 차례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지, 시, e-mail, 전화 등 원치 않는 행위를 계속하여 B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B씨는 견디다 못해 이를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에 제소하였고, 지난 2000년 1월 철학과 학생회는 A씨와 B씨의 진술 모두를 철학과 내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개사과문을 작성하여 B씨와 철학과 학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공개사과문에서 A씨는, 거부 의사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착각이며,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함으로써 인격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 초에 철학과 학생회가 이 사과문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해결을 중단한 이후, A씨의 괴롭힘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 누가 봐도 도저히 상식적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의 편지와 전화, e-mail 공세를 계속하였습니다. B씨는 학교 안에만 들어서도 불안중에 시달리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며, 졸업 한 학기를 앞두고 도저히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지난 2000년도 1학기에 휴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성적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으며, 심지어는 임의로 B씨의 수강신청을 대신 하여 휴학을 취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경에는 B씨의 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으로 찾아와 만날 것을 요구하며 두 시간 동안 전화로 협박하는 일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지난 2000년 5월 9일,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국문과 K씨 스토킹 및 성폭력 사건(이후 K 스토킹 사건)

[제소자A]

95년 말 즈음에 같은 활동 공간에서 알게된 A에게 K는 96년 5월경부터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A가 교제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여러 차례 밝혔고, 상세한 설명을 했던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96년 12월에 또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간 96년 6월 ~ 97년 4월(10여 개월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하여서 A는 전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계속되는 전화에 대해

서 A는 '전화하지 말아라' '나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이 싫다'고 수 차례 말했으며, 그럼에도 끊이지 않자 통화중 침묵을 하거나, 전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96년 12월 A와 K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합숙을 갔을 때는 K가 자고 있는 A의 몸에 팔을 올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뒤 K도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인 사과를 했었습니다. K의 전화는 영국까지 계속됨으로서(A는 97년 4월에 영국에 감) A가 부모에게 관계를 추궁 당할 정도였으나, 영국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소자 B]

97년 즈음 B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알게된 K는 99년 말부터 B에게 전화를 자주하기 시작하여,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차례씩 전화를 하고, 수 차례 메일을 보냈습니다. B역시 '전화하지 말아라'는 말을 여러 차례하고,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돌리기도 하였지만, K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초에 K는 B에게 구애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사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여러 차례 밝혔지만 5월초에 또 구애를 하였습니다. 또한 K는 통화 중에 '어디냐?', '누구와 같이 있냐?'는 등 감시하는 식으로 물어봐서 B는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97년 4월 중순에는 오후 11시경 K가 전화로 B의 위치를 확인 한 후 B가 지나는 길목에서 갑자기 나타남으로서, 이로 인해 B는 신체적,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99년 말부터 계속되었던 전화는 B가 K를 스토킹으로 제소함에 따라서 6개월여만에 (99.12월~2000년 5월까지) 멈추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개월간 수백여통의 전화와 두 차례의 구애행위, 한차례의 성폭력을 겪었으며, B또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6개월여 동안 수백여통의 전화, 수차례의 메일, 두 번의 구애, 물리적 위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스토킹을 제소하였습니다.

99년 신문방송학과 고학번 M.T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이후 고학번 M.T 사건)

99년 신문방송학과 97학번 이상이 M.T를 가서 일명 반사게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질문은 '이 중에서 화성침공에 나온 외계인이 미남, 혹은 미녀라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은?'이란 질문이 나왔고, 이마가 넓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C(95,여)가 지목되었습니다. 질문 후 C는 남자 친구인 P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외계인은 이마로 사랑을 나눈다 라며 농담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박치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박치기는 강간이야'라며 '피가 날 때까지 박치기를 해야지'라며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1)

이후 97학번과 96학번 대부분이 잠든 후 몇 명의 고학번들만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캠코더를 가지고 N(94,남)의 몸을 찍으며 '하얀 속살..'운운하면서 에로틱한 장면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고 촬영을 하고 있던 H(95,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뒤 C(95,남)가 촬영을 이어 가면서 잠을 자고 있던 H(94,남)의 자는 모습을 문제 삼으면서 두 다리 사이에 맥주병과 젓가락을 끼워놓고 웃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그 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온 K(97,여), C(96,여)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어서 다리 사이에 쏙힌 물건들을 빼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웃고 있었으며 촬영을 거부했던 H(95,여)가 가서 맥주병과 젓가락을 빼냈습니다. (사건 2)

다음날 신촌에 돌아와 이 광경을 보았던 K(97,여)와 C(96,여)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M.T에 참여했던 여학우들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후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공청회가 열린 후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으나 피해 당사자인 H가 자신의 인권을 위해 이 사건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해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신문방송학과 내 K 밴드에서 일어난 H군 언어 성폭력 사건 (이후 H 사건)

밴드 구성원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H(남)가 소개팅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상형을 '섹시하고 발랄하고 유치하고 단순하고 똑똑한' 여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J(여)가 그 발언으로 인해 술자리를 거부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어 이후 이 밴드의 게시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H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과방에서 일어난 P군 언어 성폭력 사건 (이후 P 사건)

고등학생들이 학과 탐방을 하러 신문방송학과 과방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P(남)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난 포주가 되고 싶어'라고 답했습니다. 그 때 과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그 말을 들은 J(여)가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P는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과방 내에 서로 자보를 붙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사건에 나타난 질문들과 반응들을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과방에서, 술자리·M.T·새터·축제 때, 집에서, 학교 밖의 상황에서, 수업시간에 이렇게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분류한 항목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방에서>

음담패설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을 때,

- ▶ 농담일뿐이야
- ▶ 불쾌하게 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어.
- ▶ 농담/장난인데, 그 사람의 의도를 따지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 ▶ 농담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사례제시.. P 사건에서, 고학번 M.T 사건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불쾌함의 표현에 뒤따라 나오는 이와 같은 반응들. 이후 즉각적으로 당신은 농담조차 받아넘길 줄 모르는, 유머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 버리지는 않나요? 게다가 화기에애하던 분위기마저 썰렁하게 만들어 버렸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이 때 쉽게 간과되어 버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당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의도와 분위기를 살피는 와중에 나의 '불쾌감'은 온데 간데 없이 묻혀 버리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다시 계속되는 말, 말, 말...

또 하나, 불쾌하게 하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정말' 면죄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발을 밟았다고 가정 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와 "발을 밟으려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사과할 의무가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황당한가요? 그 사람이 당신의 발을 밟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양쪽 모두, 일부러 발을 밟았을 경우에만 사과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요컨대 상대방의 '의도'가 최우선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쾌함을 표출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이 불쾌감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논리는, 사실 정말 뻔뻔한 것에 다름 아니지요.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당신의 감정(경험)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도록 내버려두지 말자구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불쾌한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과방은 어떨까요?

- ▶ 남자들은 원래 좀 그래. (여자들이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

사례제시.. H 사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은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란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서 실수 할 수도 있으니 여자가 알아서 미리미리 조심해야하지 않겠느냐' 라며 성폭력범을 옹호하는 논리를 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정말 남자들은 감율성이 없으며 욕망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으신가요?

- ▶ 너희들도 그런 농담하잖아.
- ▶ 너희들도 성에 관한 농담을 하면서, 왜 우리의 농담만 문제제기하느냐?
- ▶ 너도 같이 웃었잖아.
- ▶ 너도 실은 좋아하면서, 내숭떨고 그래?

사례제시.. 고학번 M.T 사건 , H 사건(다른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네들만 그래?)에서 나왔던 반응들입니다.

이런 반응은 상황의 초점을 흐림과 동시에 공격을 되려 피해당사자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응답패설을 듣고 웃었다는 사실이 지금 나의 이 불쾌함을 무마시킬 만큼의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같은 자극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면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겠군요. 과연 두 경우가 정말 '같은(매우 연관성이 깊은)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한번은 유쾌하게 즐기다가 다음 번엔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를 설명해보라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던가요?

그리고 '실은 좋아하면서 내숭떨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쾌함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요.. 나의 기분을 판단 내리는 주체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재미있게 즐겼었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었는지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단정지어 버린다면 정말 황당하지 않을까요?

▶ 괜히 혼자 이상한 상상하지 말라구..

사례제시.. 과방에서 은유와 상징을 사용한 응답패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오지요.

편한 은유와 상징을 섞어 넣은 응답패설의 경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성적인 유머를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순진한 채 하길 바라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온근하게 숨긴 성적인 유머를 순식간에 알아차려 버린 사람은 속된 말로 '발랑 까진' 사람이 되는 거구요. 상당히 고약한 경우로군요. 하지만 그렇다면 정작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함께 웃고 즐기라고 꺼낸 말이었다면 같이 하하.. 웃고 즐겁게 넘어가면 되는 것일 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야기의 숨겨진 뜻을 알아차린 사람을 무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이 경우도 상당히 고약하군요. 혹시 자신의 풍부한 성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혹시 그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군요. 포르노나 도색잡지에서는 상당히 왜곡된 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더라구요. 뭐든지 왜곡된 지식이란 건 위험한 것이니까요.

▶ 편한 피해의식에 젖어서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야?

▶ 너를 두고 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 개인-개인간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불쾌함은 문제시하지 않으면서, 왜 그것만 문제삼는거지?

▶ 개인의 모든 삶을 사회적 담론으로 엮어매려 하는가? 당신 (여성)의 문제제기는 개인의 취향을 침해하고 억압하려는 성질의 것이다.

▶ 왜 당신만이 유독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만약 내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

사례제시.. 독수리 오형제와 관련한 농담을 알고 계시나요? 3호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제로 불리는 이유는? 그 여성이 공대 여성이기 때문이죠.

고학번 M.T와 H 사건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특정성을 비하하는 농담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물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응답패설을 할 때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나와 친한 친구나 친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

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듣는 사람이 충분히 불쾌해질 수가 있거든요. 문화적 성폭력이나 환경형 성폭력이라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특정성을 희화화하고 몰화시켜 농담의 재료로 삼는 경험을 계속 학습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작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 속의 사람과 내가 충분히 대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와 청자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불쾌감이란 보다는 듣는 사람의 성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성과 같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동일시가 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인 것이죠. 혹시 괜한 피해의식 아니냐고 하신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분위기 살벌하게, 왜그래?

▶ 안볼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할 것까지 있어?

: 음담패설에 대해 정색하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을 때의 경우죠.

▶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사례제시.. P 사건과 고학번 M.T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제기들 중 많은 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외에 주변사람들의 반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불평 아닌 불평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칫 이러한 반응들은 문제 상황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작 가해자의 행동은 뒷전으로 밀린 채 피해자가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만 비판이 가해지는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2차로 가중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계속 볼 사람이니까, 상관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구요. 아무리 친한 사이고 계속 함께 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일들이 쌓여 가면 서로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한번보고 말 사람들이라면 그냥 기분 나쁜 말 한마디쯤 뱉아 주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더 속편한 일 아니겠어요?

(외모·몸매)에 대한 폼평회를 듣고, 그만하라고 요구했을 때,

▶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얘기, 남자들 몸매 얘기 하잖아?

▶ 특정 여성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는 한 남성의 쿡은 팔뚝이 섹시하고 보기좋아서 XX형이 좋아라고 이야기했잖아.

사례제시.. H 사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몸을 이리저리 평가 내리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순수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의 인격체를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말이지요. 요즘 사회적으로 외모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이러한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외모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재단되고 평가 내려지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대방의 몸을 대상화 시켜 놓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서 저울질 해대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 왜 특정 신체부분(혹은 여자의 신체)에 대해서만 민감한거지? 같은 신체의 일부분일 뿐인데..

사례제시.. 사립지기 (1차 자치규약 자료집이 나온 후의 문제제기)

여성의 신체 중에 가슴과 같은 특정 부분이 성차별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팔, 다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신체를 회화화, 물질화 시키면서 더 이상 한 인격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농담거리, 장난의 재료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들은 특정 신체 부위를 특히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는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도를 했다가 사회에서 동떨어져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 네가 (외모·몸매)가 안되니까, 자격지심 갖는거 아니야? (혹은 질투 아냐?)

▶ '섹시하다'는 말도 성폭력이나?

▶ (특정한 여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누구누구는 이런 얘기들으면 좋아하던데.

⇒ 왜 니네만 난리냐?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례제시.. 사립지기

문제제기 한 사람을 인신공격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잣대로 어떤 사람의 몸을 제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섹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억지를 쓰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거나, 상대방의 느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던데, 왜 너만 그러냐?" 라는 말씀은.. 글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정말 좋아하긴 한 건가요?

여자다움을 강요하지말라고 했을 때

▶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이 뭐가 나쁘지?

▶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땅이 뭐가 나쁘다고? 나쁘다고 한 적있냐?

사례제시.. 사립지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든 강요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구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남성적인 가치와 여성적인 가치를 구분 지어 놓고 그 중에서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어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남성적인 가치가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죠.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던가요? 그리고 그것은 여성과 남성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던가요? 사회적 관습에 따라 남성적인 가치와 여성적인 가치가 규정되어지고, 그 중에서 여성적인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하되고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를 재화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특정 가치에 우위를 두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습에 기대어 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을 때,(문제제기 했을때)

▶ 여자들은 꼭 자기 편할 때만 '남녀평등'이라고 한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달라거나 데이트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여자들은 뭐냐? 이중적이다.

사례제시.. 사립지기

여자들은 남자들은 함께 만나서 즐기고 놀 경우 당연히 그 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 때 여성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되겠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반응에서처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순수한 호의로 물건을 같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가차없이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비취질 수 있으니까요. 또 엠티를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남성은 물건은 운반하는 등 힘든 일을, 여성은 설거지나 밥하기와 같은 일을 맡아 하게 되기가 쉬우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성도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테고, 남성도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쪽, 저쪽 영역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 놓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지 않으려고 하거나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한마디 - * 여성이라는 점을 편리하게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맙시다.

남성들에게 한마디 - * 이런 여성을 여성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지 말고 불쾌하다는 표시를 하거나 함께 부담을 하기를 요구합시다.

▶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다. 우리도 힘들다.(남성도 피해자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느냐?

-왜 여휴만 있는거냐? 남자들도 편하게 잘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왜 총여만 있는거냐?

사례제시.. 사립지기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이 수시로 돌아다니는 공간 아무데서나 누워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절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생리통이라도 있는 날이면 편히 쉴 수 있을만한 공간이 정말 절실해지죠. 남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성 휴게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필요하다면 학교 당국과 투쟁을 해서 공간을 얻어내야 하겠죠. 하지만 재네 동아리는 동아리방이 있는데 우리 동아리는 없다고 해서 재네 동아리방을 없애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자 휴게실은 있는데 남자 휴게실은 없다고 해서 가뜰이나 공간이 부족한데 왜 공간 낭비를 하느냐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괜한 트집을 잡는 것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여는 총학

이 여학우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총학에서 말하는 '학우'라는 단어에는 여학우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담배 피는 여자를 보고,

▶ 담배 피는 여자는 개인적으로 싫어.

▶ 난 담배 자체가 싫어. (여자 앞에서만 얘기하면서, 남자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경우)

사례제시.. 사립지기, 화장실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례를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수집된 사례 중에 있던 말입니다.

담배 피는 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담배가 싫기 때문이다..라면, 담배를 피는 남자도 그만큼 싫어 하나요? 그리고 싫다는 의사 표시를 여성에게만큼 강력하게 하나요?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자체에 관한 문제제기라면 흡연구역을 따로 정한다거나 서로 약속을 정해놓는 식으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배피는 '여성'에 관한 문제제기라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피지도 못하면서 끊지 그래?

사례제시.. 사립지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어느 여학생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길을 지나가던 남학생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더니 옆에 지나던 차가 서서 마구 욕을 해대며 협박하더라는 사례를 적어주신 분도 계시구요.(화장실 사례)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땀땀함을 여성 개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회가 이러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과 그리 다르게 들리지 않는군요. 옳지 않은 것들을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나중에 애 낳을 거 생각해야지.(피지마라)

사례제시.. 이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여성들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 평소에 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언제 임신이 될 지 모르니 평소에 미리미리 조심해서 담배를 피지 말라구요? 임신을 하고 안하고는 누군가가 미리 나서서 걱정하고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요? 당사자가 미리 계획하고 신경을 써서 조심할 일이죠. 그리고 임신하고 있을 때만 조심하면 담배가 아기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니코틴이 남자의 정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두드러지고 있죠. 사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개인적 기호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히 여성들만 금지를 강요당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 중) 군대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라고 했을 때,

▶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여자들이 뭘 알겠어? 니들도 군대 갔다 와 봐야돼!.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남자들끼리 얘기야.

사례제시.. 난 이런 총도 쏘봤다.. 난 저런 총도 쏘봤다..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리기.

군대가 대체적으로 남성들만의 특수한 경험인 것은 사실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직접 겪어 보지 못한 여자들은 모를 테지만 말야..'하는 말로 시작되는 군대 얘기들은 힘들었던 그 경험을 상대방과 나누고 대화를 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사소통을 막아 버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를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성역화하고 '내'가 아니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곳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과시를 하는거죠. 그렇다면 대화를 듣는 여성들은 그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계속 우러러보아 주어야만 한다는 건가요? 직접 겪어보지 못한 여성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비슷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군대라는 공간을 특수한 화제거리로 삼아 '여자들이 뭘 알겠어?'라는 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은 좀 참아 주세요.

▶ 군대 얘기 하지 말라는 거냐?

사례제시..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로 군대 이야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언제나 이렇게 되는데 오조..^^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여자들 앞에서는 군대 얘기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가 분명히 특수한 경험의 하나이고, 고통스러운 강제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군대가 큰 관심사이며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뿐더러 처음부터 여성들은 대화에서 소외되어 버리기가 쉽거든요.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위로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군대의 불합리함을 설파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냈다는 뿌듯함,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잘 모를거라는 전제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만 하는 것은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술자리, MT, 새터, 축제 때>

술 따르라고 강요받았을 때,

▶ 뭐하냐, 재(주변에 앉은 선배) 술잔 비었는데..안 따라주고.

대학에서 술자리는 많은 경우 공동체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함께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문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술자리를 지배하는 강요와 강제의 분위기는 그 속의 친목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할 때에도 위계적인 질서나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에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강요의 분위기는 꼭 물리적 실행이나 눈에 보이는 강제가 없더라도 (위계 질서 등등의 것에 의해) 암묵적으로, 심리적으로 형성되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으시죠?

술 따르라고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면,

▶ 술은 여자가 따라주는게 맛있지 않나?(술은 여자가 따라주는게 제 맛이다.)

▶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여자는 남자가 따라주면 되잖아?

여성들이 이러한 말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누가 아무리 딴 이유 갖다 붙여도 다분히 '여자는 술시중 들고 남자는 즐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장식품도 아니고 시중드는 부수적 존재도 아닐뿐더러 그 누구의 기분도 띄워줄 의무가 없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 개인적인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사회적 함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발언이 불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언뜻 들기에 남녀가 평등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한 술 따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 때문에 우리는 위의 발언을 단순한 호감에 의한 것이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상황이나 맥락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사실, 사회적 함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좋은 사람과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싫다는 것을 강요하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쁘게 술 마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술자리 '분위기'(항상 이것이 문제지요)를 위해서 여성에게 불쾌한 분위기를 참아내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편한지를 정확히 알고 모두가 불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즉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도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는 술자리가 아니라, 그 발언 자체가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술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위기 수습하려 다른 남자가 술을 대신 따라 줄 때,

▶ 난 재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싶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요구한 사람의 의도나 그와의 관계,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정한 것일 것입니다. 술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든지, 자신이 압박해서라도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억지 부리는 사람처럼 술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위계에 대한 도전이나 선배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원샷을 강요받았을 때, 잘 마시면,

▶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시냐? 무슨 남자애가 술도 못 마시냐?

: 이상한 효과음.. 어어얼~~, 술을 잘 마시는 여학우에게 이후, 마담이란 칭호가 붙을 수 있다.

못 마시면,

▶ (여자애가) 빼기는... 내숭떨지마.

여성이 술을 잘 마시면 잘 마시는 대로, 못 마시면 못 마시는 대로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해 성녀 혹은 창녀로 구분하는 이중 잣대가 대학 술자리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술을 잘 마시면 강한 인간으로, 그렇지 못할 때는 약한 인간으로 암묵적으로 평가 내리는 것은 술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강한 억압제재를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여성이 솔직히 자신을 드러냈을 때, 우리 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바로 위에 있는 그 반응들 그대로 아닌가요? 이젠 비단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못 마시는 남성은 술자리에서 몸을 버려가면서라도 술을 마셔야 하고, 술 마시기 싫은 사람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술을 잘 마시는 여성은 여성이라면 (당연히) 약해야 하고, 그래서 술도 못 마셔야 정상인데 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자애가 좀 놀았나 본데~~"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고 최소한 못 사람들이 내지르는 놀라움의 탄성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술 못 마시는 여성은 남성보다는 덜 억압적인 상황에 놓일지 몰라도, 역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자리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가 됨과 동시에 잘못하면 왕내숭으로 찍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성이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평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히 술을 마셔주면서도 조신한 여성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많이 마시지는 않도록 잘 조절하는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겁니다. 여성은 이런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당연히 자유로워야 하겠지요?

원 샷을 거부할 때,

▶ 분위기 쎈다.

▶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뭐하냐?

▶ "항상 원샷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특별한 날(축제)이지 않냐? 언제 또 이렇게 마시냐?"

원 샷이야 능력 되고 기분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분위기는 다른 이의 음주량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꼭 술 많이 마시고 취해야 기분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마셔 마셔" 하는 신나는(?) 분위기를 깨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싫은 술을 한꺼번에 들이키게 하는 것은 충분히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쎈다니요. 원 샷하기 싫은데 억지로 원 샷해서 기분 상하면 그 분위기 수습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위기 깨는 걸로 말하자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키는 것이 명랑한 술자리 분위기를 깨는데 더 효과적인 수 있겠지요.

술자리에서 자리 배치할 때, '남녀 섞어 앉아라' / '(남자가 여자에게) 난 제 옆에 앉을 거야'

- ▶ 너희들 내외 하나?
- ▶ 친하게 지내려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냐?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강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 물론 선배와 후배가 섞여 앉음으로써 좀 더 쉽게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고·남고를 나와 또래의 이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색해 하는 새내기들이 섞여 앉음으로써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남학생 사이 사이에 여학생들을 앉게끔 함으로써 마치 양팔에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던 예전 남성들의 권위적인 모습들이 무의식중에 연출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한 성이 적은 경우 뽄뽄이 떨어뜨려 놓는 것은 오히려 그 성에게 억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적절하게, 서로 친할 수 있는 기회도 좋겠지만, 그로 인해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되겠지요.

M.T, 축제 놀이문화

- 여자에 눕혀놓고 위에서 푸쉬업·김밥말이
- 여왕벌 놀이
- 과격한 운동의 게임(???)
- 고대(이대도 우리 것, 숙대도 우리 것... 새로쓰는 성이야기에 있음)

여자를 눕혀 놓고 그 위에서 푸쉬업하게 하는 놀이는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빈번히 하는 벌칙 중 하나이며 남성과 여성이 가장 가까워졌을 때 사진도 찍어 놓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두 남녀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신나는 그런 게임인 것이지요. 김밥말이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김밥재료가 된 다음에 김밥을 듯이 한사람씩 누울 사람들을 위를 굴러가는 게임을 말합니다. 여왕벌 놀이는 사회대 새터에서도 한 놀이인데, 각 팀에서 자신들의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닭싸움을 하는 놀이입니다. 기사도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여왕벌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킨다'는데 여왕벌이 아닌 다른 '여학우들'은 그 과격함에 놀려 참여할 수 없어 소외되고 맙니다. 여성들은 멀리서 '우리편 이겨라' '저러다 다치겠다' 하고 있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걸으로는 여성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 게임이지만 무섭게 달려드는 남성들을 보면 거기 들어갔다가는 죽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러이러한 게임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할 때,

- ▶ 성적 업숙주의다.
- ▶ 내숭떠나.(실은 좋아하면서)

이러이러한 게임에 대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 ▶ 발랑까졌다. 되바라졌다. 좀 놀았나보네. 드세다. 움기가 강하다. 무섭다. 뜨아. 진짜 사남다.

여성과 남성의 강제적인 접촉을 보면서 재미나는 분위기를 연출해 보려는 놀이는 여성에게는 다분히 불편한 감정을 선사합니다. 남성들도 불편한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구요.

불편함에 대해 불편하다고 의사 표현하면 그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신나게 게임 해야 하는 분위기(이게 중요하잖아요?)에서 내승떠느라 탄지까지 걸지는 않을 겁니다.

게임에서 신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녀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것이 불쾌한 것은 절대 성적 엄숙주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음지에 숨겨지면서 왜곡된 성을 양지로 끌어내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남녀간의 신체 접촉을 이용한 게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성에 대해 자유롭지 못해서 무조건 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판단에 대한 말씀은 앞서서도 드린바 있습니다. 남성들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그러하듯이, 여성이 '하기 싫다',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열심히 하고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어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해 요구되는 여러 잣대들을(뭘, 청순하면서도 섹시하고, 발랄하면서도 얌전하고, 지적이면서도 단순해서 말 잘 듣는 여자 등등의 것들) 여성에게 들이대면서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분위기 켜다.

몇 사람만 신나고 다른 사람은 불쾌함을 참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겠지요. 게임이란 것이 함께 하자는 것인데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겉으로 좋은 분위기 연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서의 상황

▶ 집에서 여자인 나에게만 집안일을 시킬 때,
“네가 여자니까 (집안일)해야지.”

▷ 집에서 수도 없이 듣는 얘기들이죠? “왜 나만 해야해?” “여자만 집안일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딴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라도 하면, 일하기 싫어서 틀툴거리는 거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말입니다. 만약 내가 그저 일하기 싫어서 몸을 빼는 거라면 그 뉘은 고작해야 또 다른 여성인 어머니께 돌아가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집안 일은 당연히 여자들의 몫이다.’ 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 날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켠에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 음식 장만하고, 남자들은 TV나 보고있지 않은지. 혹...여러분들의 오빠/형이나 남동생은 굶을망정 자기 손으로는 밥 한번 못 차려먹는 사람은 아닌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집안 일은 여자가 더 잘하니까? 남녀의 성 역할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거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사실일 텐데요? 과연 이런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이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다니니. 일찍 좀 들어와라.”
“여자애가 엠티는 무슨...”

▷ 요즘 세상 참 위험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자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자만 조심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강도에게 돈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빈털털이로 다닐 것이 아니라, 강도가 강도질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듯이 말입니다.

▶ “여자애가 공부는 무슨 공부. 시집이나 가지.”
“(공부 못하는)아들이랑 (공부 잘하는)딸이랑 바꿨으면 좋겠다.”

▷ “에~ 요즘 이런 얘기하는 집이 어딴어?” 라고 반문 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현재에도 분명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랍니다. 비슷한 예로 딸이 재수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부모님. 어때요, 꽤 여럿 되지 않나요? 위와 같은 얘기들은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생각들이죠. 남자는 당연히 대를 이어야 하고, 여자는 시집가고 나면 출가의 인이므로 남의 집 사람이다. 따라서 기왕이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해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는...

▶ "좀 여자답게 하고 다녀라."

"옷 좀 압전히 입고 다녀라. 치마 길이가 그게 뭐니? 반바지, 민소매 터는 절대 안 돼."

"화장이 그게 뭐야. 너무 진하잖아."

▷ "담배 피우는 여자는 쉬워 보인다." "새빨간 립스틱은 천박해 보인다." "여자들이 옷을 야하게 입는 것은 성폭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나치는 말처럼 들게 되는 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얘기는 곧, 여자를 성녀와 창녀 두 종류로 구분하고, '창녀로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조신한 몸가짐을 해라.'라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책임이구요. 그렇지만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적용시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지 않은가요?

그리고...

▶ "나 같은 남자(아빠, 남편)가 세상에 어딴냐?"

▷ 이따금 가사 노동을 하는 남자들이 매우 자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래 가사 노동은 여성의 몫이고, 남자는 단지 여자들의 일을 거들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있는 말들이죠.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가사 노동이 여성의 책임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식의 이런 말은 단순한 권력 과시, 또는 생색내기 이상의 의미는 갖기 힘들겠군요.

▶ 담배피는 여자, 집에 늦게 귀가하는 여자를 보고

"내 동생(애인)이면 가만 안둔다."

▷ '나는 남자니까, 가장으로서 동생을 잘 가르치고 보호해서 흠이 없는 상태로 시집 보내야 할 의무가 있어. 담배 같은 거 손대게 해서도 안되고, 밖으로 내들려서도 안돼. 그리고 내 애인 역시 그렇게 보호되어야 해.' 라는 의미로 들리는군요. 그야말로 어쭈잡은 기사도 정신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너 이려고 다니는 거(담배피는거, 늦게 들어가는거, 외박 자주하는거...) 부모님이 아시니?(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말 못합니다. (이 얘긴 그저 '담배피지 마라.' '일찍 다녀라.' 라는 얘기들을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이해됩니다만...) 그렇지만 그건 내 행동이 부끄럽다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된/ 반응을 감당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억압적 구조 속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 속으로 날 밀어넣는 건,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만

떠맡긴단 의미일 뿐이구요.

더군다나 이미 성인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내지는 사소한 행동까지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요? 여자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속해야 한다? 설마 아직도 삼중 지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얘기해봐. 따져.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문제지.)”

▷ ...--;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위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시길... 언제나 그렇듯 오랫동안 안 뿌리 박혀있는 사고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 내가 여자에게 억압적인 집안 분위기에 대해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네 말이 맞긴 하지만, 네 생각 이해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니들이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야 하지 않겠어?”

▷ 이런 얘기는 현실을 바꿔나가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할 순 없겠군요. 그렇게 현실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여학우들이 집에 갈 때, 택시 번호판이나 열심히 외워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될거 같군요.

남자와 여자가 좀 더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순종적이고 조신한 여동생(예인)에 대한 요구 등은 이제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아마도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는 이렇게 고정된 성 역할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 밖 상황에서>

밤길에서 여성이 앞에 가고 있을 때, 조금만 발걸음을 멈추고 늦게 가달라고 남성에게 요구할 때,

▶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그랬어? 내가 남자의 대표라도 된다는 거야?

▶ 모든 남자를 잠재적 성폭력범으로 몰지 말라.(남자도 피해지다.)

사례제시.. 사립지기, 화장실 사례, 그리고 이 양성평등 에티켓을 통신 게시판에 올렸을 때 나온 반응들입니다.

가해자로 물리는 것같아 기분나쁘시다고요? 우리는 당신을 가해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뒤에서 걸어오는 남성이 실제로 가해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요. 그럼 하루종일 피해에 시달린 여성이 밤길마저 마음졸이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보세요. '난 아니야. 오해하지마'라고 말하면 되는 일일까요? 이럴 경우 조금 뒤쳐져 걷는 남성의 배려가 '난 아니야'라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 있겠죠.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지맙시다 라고 요구했을 때,

혹은 여성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아래위로 훑어보지 맙시다 라고 요구했을 때,

▶ 우연히 휘파람을 분 것일수도 있지 않나?/우연히 바라본 것일 수도 있지 않나?

▶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사기치는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사례제시.. 자료집이 나온 뒤 많이 질문하신 부분들입니다.

아무 죄 없는 남성이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여성이 사기치거나 앙갚음을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할건지 궁금한 건가요? 여성이 아무런 생각 없이 분 휘파람 소리에 과민 반응하는 것일까요? 기분 나쁘게 부는 휘파람과 우연히 들리는 휘파람의 차이를 모를 정도로 여성이 비이성적이고 상황판단 못하는 물지각다는 말이군요. 절대로!!! 여성은 지나가는 남성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혈안이 돼 상황판단 못 할만큼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남성이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휘파람을 불었는지 아니면 여성의 몸매에 감탄해서 휘파람을 불었는지는 궁금하지 않나요? 중립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떻게 구분하는데?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는 말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의 논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성폭력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 니가 좀 조심하지 그랬어.

사례제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왜 좀 조심하지 않았느냐 혹은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그랬느냐는 반응을 보이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왜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후에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는지.. 도대체 '좀 조심하지 그랬어.'라는 말은 '강도에게 더 저항하지 그랬어? 그러게 강도 당하지 않게 조심하지 그랬어.'라는 말과 얼마만큼 다를까요?

강의실에서

▶ 나는 왜 여자들이 스튜어디스가 못돼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사실 스튜어디스랑 술집에 있는 아가씨랑 뭐가 다르나?

▶ 내가 야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 (학습자료 사진을 가르키며...) 이 여자는 가슴이 좀 작죠? 어떻게 모델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이대는 움기가 너무 썩서 흠더라구요. 그나마 연대가 옆에서 양기를 좀 보태주니까 그 정도지 다른 여학교는 더 추울 꺼예요.

A. 야~오늘 xx교수 너무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막하니?

B. 난 교수는 그렇다구 그 얘기 듣구 킬킬대며 웃는 애들 꼴 정말 못 봐주겠더라구. 그게 머야? 도내체. 정말 짜증나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구.

C. 야~머 어때서 그래? 재있던데? 그거 다 너네 피해망상아냐? 글구 불만이 있음 직접 교수한테 내놓구 이야기 할 것이지. 왜 비겁하게 뒷 다마(談話)야?

A. 너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애? 교수한테 찍혀서 학점 안 나오면 어떻게.

B. 췌~! 그 정도 각오도 없으면서 무슨 너가 대단한 페미니스트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굴지 말라구. 한번 두 번 격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젠 엄연한 현실이라구.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본적 있나요? 그리고, 수업 시간 후에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경험을 하진 않았나요? 무엇인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할 수 없어서 더욱 힘들었던 적은 없나요? 이제 맘껏 자신의 느낌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교수와 학생사이에는 강력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학점과 성적이라는 벽이 쳐져 있는 거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벽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맘껏 해내지 못했을 꺼라 생각되네요. 불편함과 불쾌함을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선생님께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싶지만 내 성적의 전권을 쥐고있는 선생님이 맞서서 한 개인이 소리를 낸다는 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지요.

이제 이 소리를 모아보죠. 그럼 우리도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 목소리로 자칫 힘에 역눌릴 수 있는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도 강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학기 우리학교에도 드디어 '성폭력 학칙'이 제정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신이 학내에서 경험했던 성적 모욕감, 불쾌함, 불편함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규제하며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항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학칙을 적용시키고 판단하는 조직체

가 구성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학기에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학칙의 적용이 실시되면 성폭력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서 풀어갈 수 통로가 더욱 넓어질 수 있겠죠.

자신이 수업시간에 겪은 성적 모욕감, 불쾌함, 불편함들을 주변의 많은 이들과 이야기하세요.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테고, 주변의 여성자치 단체, 총여학생회도 있잖아요. '나만 이러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인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묵살해 버리지 말아요. 자신의 생각을 꺼내 이야기하고, 다른 학우들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요. 누가 어떤 수업, 어떤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겠죠? 우리들 성적에도 영향을 끼칠리 없구요. 어때요?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 요즘 저희과에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것은 큰 문제예요. 여학생들은 나와봐야 별로 열심히 활동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들 대학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보람도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 남,여 학생의 일정 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여학생들 멋이나 내고 시집이나 잘 갈 궁리하지 마세요. 이대 학생들 보면 철학, 신학 박사가 다수인데 연대 여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뻔뻔하게 화장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 요즘 여학생들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세상은 둥글게 둥글게 사는게 좋지 모나면 재이기 마련이죠.

성차별을 방관하시는 교수님들께...

교수님들은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시키면 어쩔 거냐", "여자가 계속 공부해봤자, 교수되기도 힘들텐데, 왜 공부하냐"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현실이고, 난 다만 그걸 전달할 뿐이다' 고 생각하시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 사회가 강한 가부장성을 띠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커피심부름을 하며, 교수가 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이고, 교수님들은 이런 현실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왜 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의 발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사회를 관찰하는 격리된 한 명의 방관자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보고, 그것을 관찰해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알려줄 뿐이라고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현실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현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순간이 그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교수님들이 '커피심부름'을 운운하면서, 그리고, '여자가 공부해봤자'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것은 듣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의 강력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와는 동떨어져 있고, 다만 현실을 살아가게 될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노라'하는 따위의 거짓스러운 가르침을 혐오합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교수님들도 그런 말들로, 그리고, 교수라는 강력한 권위로 이런 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이미 몸에 깊이 베어버린 가부장성을 현실이라는 근거로 우리에게도 당연시하라고 주입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그런 행동들이 가부장의 모순과 부당함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한 층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현실을 말하기에 앞서 내가 왜 현실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될 수 있다면 현실을 바꿔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회를 관찰하고, 가르침을 주는 교수라는 직책을 떠나서 현실에 발 딛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더욱 학생들에게 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더 이상 현실이 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교수님들의 현명한 '현실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스토킹 & 성폭력 사건 공개서>

성폭력 사건이나 스토킹사건을 학내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

▶ 사적/개인적인 문제를 공개화시킬 수 있느냐?

사례: 철학과 대학원내 학생회에서 “철학과 스토킹사건”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당시의 주도적이었던 여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회에서는 공개화를 철회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자보를 붙여, 사건이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휴학을 하였고, 다음 학기가 되어서 원충에 이 사건이 다시 접수되어 사건해결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글: 사실 이것은 성폭력사건을 공개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지긋지긋해서 실례를 무릎쓰고, 되묻고 싶군요. 당신들에게는 성폭력사건이, 스토킹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도 수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때문에, ‘성폭력’ 때문에 피해를 입는지 설명해보십시오. 어째서 ‘개인적’인 문제인지를 설명해보라구요.)

실상 성폭력사건이나 스토킹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을 경험하고, 스토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피해들이며, 어쩌다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함께 해결해야 공동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구요? 그러면, 수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면, 그만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가해행위)을 인정하지 않고, 버텨기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란 말인가요?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길 원하였지만, “버텨기”는 가해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철학과 스토킹사건에서 철학과 대학원내의 주도적인 여론들, 즉, 스토킹 사건 자체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건해결은 아무 것도 되지 않았으며, 되려 가해자가 뻔뻔스럽게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또다른 가해(대리수강신청, 집앞에서 기다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경험을 묻혀버리게 하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계속해서 받거나 혹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개화는 성폭력 & 스토킹사건이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시도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다면, 공개화가 아니라, 사과자보 하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화”를 통해서만이 ‘사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건을 공개화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와 ‘피해자’간의 논의,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최종결정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은 피해자의 앞으로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화결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

니다.

당신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피해경험들을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으려는 시도에 대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도록 방관한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화되었을 때, 피해자가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피해자의 용기에 '칭찬'을 해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피해자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지의 기반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소집단내에서 성폭력, 혹은 스토킹사건이 발생하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공개화를 하려 할 때, 제3자로서 이런 질문은 던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얼마만큼 대화하려 했는가?", 혹은 "(피해자주변인들에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얘기하려 했는가?" 따위의 질문 말이지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공개화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적인 해결'을 최대한 해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피해자에게) 너 얼마만큼 견뎌?"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함으로써 정신적인 괴로움, 혹은 위험감 속에 놓이게 되는 것,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당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욕감과 굴욕감 등등의 여러 가지 불쾌함의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하여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대화"를 얼마만큼 하려 했느냐라는 말은, 피해자의 피해의 경험들을 "참고서", "잠시 잊고서" 그래도 대화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얼마만큼" 고통을 견뎌야만이 그 피해를, 그 고통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대화"를 얼마나 하려 했는가라는 질문이 "피해자주변인들"에게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3자로서 질문될 수 없습니다. 당장 당신이 피해자의 주변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와 이야기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지 않은가요? (사족이지만, 얼마만큼이면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할 것이며, 얼마만큼이면 더했어야 했다고 판단할 건데? 그 판단의 기준을 당신이 정말 "객관적으로" 갖고 있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건가요?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그 정도도 안 했을 것 같나요? 피해자 주변인들의 노력을 의심하는 것은, 곧 피해자주변인들(소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공개화라는 방식을 택한 과격하고도 이상한 집단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해자가 피해자주변인들(소집단의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단내에서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화'를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주변인들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나 해결을 시도할 때, 가해자가 뻔뻔하게 가해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주변인들에게 제2의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화만이 최선인 상황에서, 피해자 주변인들의 노력을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그닥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그 고통을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해자주변인들 역시 제2의 가해를 참아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비대위'가 구성되고, 공개화되었을 때, 피해자의 피해를 의심한다거나, 피해자주변인들의 노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가해사실을 뻔뻔스럽게 인정하지도 않는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개화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사례: 신방과 99 노땅 MT사건 공청회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공개자보를 쓰려고 했을 때 나왔던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스토킹사건 해결을 위한 대학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공개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글 중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설명글: 우선, 위의 문제제기가 만일 '사적인 문제를 공개화시킬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분명 "왜 공개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공개화'를 통한 해결방법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사건도 아닌 걸 갖고, 공개화하는 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한다.) 결국 이 질문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냥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지 말고, 사건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얘기해보십시오.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쯤은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어떠어떠한 사건이 별 것 아닌 사소한 것이고, 어떠한 사건은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크다를 판단한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원이라는 지성사회에서 개연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준이 존재한다"(이 말뜻이 뭔지 알겠나요? 사실 저도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도 모를걸요.)고 주장하면서, "국문과 스토킹사건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발언은 아주 문제적이지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공개화여부조차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객관'을 운운하다니 말이죠.

사건의 경중,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적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강간미수"라는 도식으로 '사소한 문제/중대한 문제'로 나눌 때, '사소한 문제'를 '별 것 아닌'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이 모두가 "성폭력"이지 않은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은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게 어찌 사소하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달리 바꾸면, 피해자에게 "이만큼은 참을 수"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생각은 공개화여부까지 결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만큼"이라는 게 어느 만큼 인지를 "객관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피해가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일 때만 사건 해결(공개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신체적인 고통이 가해졌을 때에만, 문제해결과정에 들어가는 우리사회의 성폭력사건 법정해결과정과 그 무엇이 다른 말입니까?

사건이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서 제발, 우리 피해가 사소하다, 별 것 아니다라고 치부하지 맙시다. 당신이 그 피해의 상황 속에 놓여있어 보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었으면서, 어떻게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결국 "너, 정말 피해를 입긴 입었냐?"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공개화를 결정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 공개화는 마녀사냥아니냐?

▶ 페미니스트 집단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개화로 한사람을 매장시키려 한다.

▶ 페미니스트의 횡포이다.

▶ 선배와 후배간의 권위를 이용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사례: P군사건에서 주변인들의 반응.

사례: 신방과내 K밴드의 H군사건에서 H군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P군 사건에서 P군 역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H군 발언인용: 「어제 당신의 발언중에서 그리고 오늘 적어놓은 글 중에서 정말 맘에 안들었던 부분은 '개나소나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왜 참는지 알아? 밴드를 하고 싶기 때문이야'라는 거야. 당신에게 개나소나가 어떤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그리고 당신의 노래에 당신의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난 개나소나가 단 하나의 신념만을 음악적으로 표출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념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각의 자기 몫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앞의 말들을 듣고서 난 개나소나가 당신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 상당히 의구스러워. 밴드라는 지상명제를 위해서 당신의 소신을 굽히면서까지 다른 멤버들을...특히 나를 용인 해주었다는 말이야? 아니면 개나소나가 정치적으로 매우 올바르게 억압적이지 않는 여성주의자 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안된다는 말이야? 왜 개나소나에 감정이입을 해야하지? 어차피 당신의 몫은 정확히 당신만큼 밖에 없는데..그게 싫다면 못하겠다는 말보다는 각개전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밴드활동여부를 일종의 섹슈얼리티로 이용하는거 정말 보기 안좋아..」

설명글: 단호하게,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P군 사건에서 주변인들과 H군, 모두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성폭력은 아주 협소한 의미로만 여겨져왔습니다. '성기삽입'이 되었느냐,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정확히 말하자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바로, 성기삽입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하다고 보여지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성차별적인 문맥이 존재하는 발언들, 행위들 역시, 가해자의 발언/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불쾌함, 기분 나쁨, 분노 등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가해'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인 것입니다. ("공개화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피해경험을 '정도'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으니, 설마, 또 불쾌함, 기분 나쁨, 분노도 피해라고 할 수 있어?라고 질문하는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공개화까지 하려고 하는 걸 보니, 무슨 음모가 있는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정체를 "선배-후배의 권력관계", "페미니스트 집단의 횡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선후배의 권력관계를 이용한다.' '페미니스트의 횡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쾌함을 느낀, 기분나쁨을 느낀, 분노를 느낀 피해자가 실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폭력사건, 스토킹사건에서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선후배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가해자라니, 페미

니스트의 횡포라니...

분명 피해자는 성차별적인 발언/행위를 했던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있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합니다.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곧 가해자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게, 그게 그렇게 부당한 일인가요? 결국,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행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속출하는 피해들을 방관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폭력/스토킹사건을 문제시하거나, 공개화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내에서는 그 지지기반이 미약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어이없는 비난과 오해는 사건해결과정에서, 혹은 토론과정에서 문제제기하는 이들의 힘을 주욱 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제기의 방법이 부당하다/과격하다.

사례: 신방과내 P군 사건에서 주변인들과 P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과 내 K밴드의 H군 사건에서 H군도 역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H군 발언인용: 「난 당신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내뱉었던 말이 무해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의아해'하면서 당신에게 물어본거라구. 왜 화가 났느냐고. 당신의 민감함에 한번 의존해볼까하고, 또 하나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었다면 그건 당신의 신념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때문이었어. 가만히 있다가 불쑥 한마디 던지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버리고... 게다가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면서 집에간다면서 나가버리고. 당신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거 최소한 머리로 알고 있어. 그리고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여성주의자들의 고달픔도 모르는 바 아니야. 게다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을 땐 그 충격이 배가되리라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발언이 나온 당시에 개입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을... 물론 나중에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 문제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당신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야.」

설명글: "언어적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냥 작이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분나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분나쁨을 "직접"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기분나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시비조의 말이라던가, 비아냥 거리는 말이라던가, 무시하는 말이라던가 등등... 생각해보세요. 기분나쁘게 한 사람이 먼저 누구였는지를, 성폭력적인 "언어"를 행한 사람때문이지 않는가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되려 "좀 과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좋게" 말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기분나쁘게 했던 "당사자"가 "당신의 문제제기방식은 너무 과격해, 부당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언어적 성폭력"이 그닥 큰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성폭력이 가해졌다면,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말했어도/행동했어도, "그래도 싸다"라고 이해하지 않나요? (앞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그 얘기는 생략하

조.)

주변인들이 '과격하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일단, 피해자가 분명히 '언어적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인으로서 가해자에게 네가 '언어적 성폭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지, 피해자에게 "네가 좀 좋게 말하지"라고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를 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대처방식이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언어적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분명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이상, 자신이 그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지를 고민하고,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두 번째, 주변인으로서 '언어적 성폭력'이 행해졌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방식이 너무 과격해"라고 말하는 경우, 물론, 언어적 성폭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건 사회분위기,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거잖아요? "방식이 너무 과격해"라고 말하면서, "왜 피해자가 시비조로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나왔을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물었던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켰잖아요. 그리고, "방식이 너무 과격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언어적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시켰잖아요. '방식'만을 얘기하면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 즉 본질은 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를 "너무 민감하고", "너무 과격하고", "너무 쪼잔하다",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 역시, 가해자와 연장선상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해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기분나쁘게 했던 그 당사자가 문제제기의 "방식"을 트집잡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자신이 기분나쁜 말을 해놓고서,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 방식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기분나쁘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한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실, 무슨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기분나쁘다'라는 표시를 하면, "내가 뭔가 잘못 했나", "잘못 한 건 없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한거야"라고 말해주라고 부탁하는게 상대를 고려하는 태도가 아닌가요? 그리고, '언어적 성폭력'이 무엇인지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언어적 성폭력'에 대하여 서로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기분나쁨만 생각하면서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과격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 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느냐?

▶ 우리의 문제를 왜 '너희들이' 제기하느냐?

사례: 첫 번째의 경우, 오책사건해결과정에서 '오책'이 이사건을 왜 말아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98년 총여선거때, 리플렛에 기숙사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경험담을 실은 적이 있었다. 당시, 선거원 중에서 선거 시작되기 얼마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실기를 원하였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건너편 고시동에서 어떤 사내가 자기 방에서 흰하게 불을 켜놓고, 창가에서 맞은 편 여학생들이 보란 듯이 자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몇몇 여학우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때의 당황스러움, 황당함, 그리고 기분나빴던 심경들을 리플렛에 적었던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고시동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었는데, 고시동에 사는 우리 모두 '번태'라는 거나라

는 항의가 들어왔고, 선본에서 그에 대해 해명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었어요. 이후에, 또 기숙사 자치회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왜 너희들이 제기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물론, 이에 대해서 '다음기 기숙사 자치회'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논의되었어요.)

설명글: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왜 너희가 문제제기하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성폭력 사건을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집단이 사건 해결의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에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폭력 사건은 ('성'에 연관된 사건이 아니라) '권력'에 관한 사건이며 가해자는 ('성적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확인과 표현을 위해 성폭력을 행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단순히 남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집단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수라는, 선배라는, 나이가 많다는, 어떤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등등의 것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위치가 부여되고 통용되는 소집단(예를 들어 과, 단대, 대학, 오책, 동아리 등등)이 사건 해결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바로 그 책임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즉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된 집단에서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며 당연히 그 집단 전체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1차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이 단지 1차적일 뿐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왜 너희가 문제제기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는 대개 단 한가지의 불순한 의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이므로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그 집단이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해나가고 있다면, 사실 외부(?)에서의 문제제기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겠어요? 사건 해결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런 질문은 매우 문제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폭력 사건은 해당 집단 내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당 공동체는 사건 해결의 '단지 1차적 책임'을 가질 뿐, 그것이 다른 사람은 절대 개입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차 지적했듯이 성폭력 사건은 권력과 연관된 사건이며, 사실상 모든 사회 전체에 평배해 있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와 떼어놓고서는 결코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은 사회 전체가 변화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폭력 자체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성폭력을 근절할 책임과 권리를 갖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불순한 것은 "왜 너희가 문제제기하는가?" 라는 질문이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입니다. 만약 해당 집단이 성폭력에 대해 무지하거나,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착수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않은 해결 방식을 취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평배해 있거나, 기타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피해자는 당연히 다른 단체나 기관에 사건해결을 의뢰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덧붙이자면, 기본적으로 두 질문 모두 사건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방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 공론화로 인해서 한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 공론화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처벌(실명공개사과, 학적조치, 가해자프로그램이수)로 인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사례: “철학과 스토킹사건 비대위”의 비대위공개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글 중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 사건에서 “비대위”의 사건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가해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국문과 K씨 스토킹사건”에서 “원충”이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설명글: 우선, 공론화로 인한 피해의 경우!

앞서 얘기했듯이, 공론화는 학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공론화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론화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거나,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피해를 방관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공개화를 할 때,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실명공개사과, 학적 조치, 가해자프로그램이수)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어떤 잘못에 대해 사회적인 힘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특정한 권리에 대한 일정정도의 제한을 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잘못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면서 ‘처벌’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이든 간에 ‘인권침해’, ‘명예훼손’이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성폭력사건소송과 명예훼손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 많이 보지 않았나?)

피해자의 ‘피해’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만이 이야기됩니다. 이런 점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벌이든 간에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는 왜 얘기하지 않는가요?!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란 말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권침해’는 ‘어떤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가령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교조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알몸수색). 하지만 대부분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나오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Tip: ‘실명공개사과’는 가해자가 또 다른 공간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와 같은 사건을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지요.

▶ 해결방안이 너무 과하지 않나?(가해자 프로그램이수, 실명공개, 학적 조치 등등)

사례: “철학과 스토킹사건 해결을 위한 대학원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공개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글 중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원총에서 국문과스토킹사건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Tip: 가해자 프로그램이수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가해자프로그램이수를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가해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프로그램이며, 장려할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상담자에게는 굉장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봉사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에 그것도 ‘공짜로’ ‘고민하고’생각할’ 기회를 주는 셈인데, 가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좀 너무 하지 않나요?

설명글: 사실,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라는 말은 사건자체가 경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의 일로, 그만한 처벌을 받다니”라는 함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는가요?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느껴야만 판단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과연 그 고통이 경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건해결을 위한 요구안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었던 물질적, 정신적 고통들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비대위와의 논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해결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원리이며, 사건해결과정에서 비대위의 요구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한 요구안, (2)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요구안, (3)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구안이다. 이 세가지 정도의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요구안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이러한 해결방안이 너무 과합니까?

▶ 사법적 판결은 곧 가해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사례: “철학과 스토킹사건 비대위”의 비대위공개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글 중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설명글: 정말 설명이 필요없는 반응이지 않은가요?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형을 받으면, 도둑도 피해를 입는 것이겠네요? 그쵸? 성폭력, 스토킹사건만 발생했다고 하면, 왜 그리도 이런 이상한 문제제기를 해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학내에서 공론화를 하는가?

사례: “철학과 스토킹사건 비대위”의 비대위공개사이트에 올라와있던 글 중에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니다.

설명글: 현재 우리나라 법률을 살펴봅시다. 일단 성폭력사건의 경우, 성폭력이란 '부녀자'의 '정조'를 침해한 범죄이고, '친고죄'에 의해서만 고발될 수 있으며, 파출소 경찰에서부터 검사, 판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과정 자체에서 2차가해, 3차가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육체적인 성폭력이 직접 행해졌을 때도, 실제적인 '증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니 언어적 성폭력과 같은 "성폭력"은 어디 말도 못 붙일 일이죠. 그리고, 스토킹사건의 경우,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적 판단에 맡겨서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웬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학내에서조차 성폭력,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별것아닌 것,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데, 어찌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오리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이 공개화되었을 때, 지지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공개화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질문들을 한마디 특별고 사라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의 활동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면, 비대위에 직접 질문하고, 성실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르는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적인 특성/성격일 뿐이지 않느냐?

▶ (가해자)의 행위태락, 의도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사례: 첫 번째의 경우는 "국문과 K씨 스토킹사건"에서 원충이 취한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국문과 K씨 스토킹사건" 당시 비대위가 가해자와 면담했을 때,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설명글: 가해자의 개인적인 "성격/특성/성향"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어쩌다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말은 뒤집어보면, 피해자가 어쩌다 재수없게 걸렸다는 말입니다. 하하하. 어쩌다 재수없게 걸린 거라면, 얼마나 좋은만.. 그랬다면, 침이라도 뱉받고 재수없어라고 한마디 하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되지... 하지만, 성폭력 사건, 혹은 스토킹 사건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하루평균 26건정도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통계가 공식적인 집계인데, 공식화되지 못한 사건까지 생각한다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지 상상해보세요. 앞에서도 말했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격때문이라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격/특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가해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가 좀 유별나서 그런거지 뭐, 개가 좀 이상해서 그런거지 뭐'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성격/특성" 때문에 전화통화를 많이 했고, 혹은 겨안거나 뽀뽀한 것일 뿐인데, 뭐 어쩌겠어라는 것입니다. (국문과스토킹사건에서 원충이 "개인적인 성격"을 들먹였으면서, 실상 아무것

도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는 걸 보십시오. 정말 이런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은 '성격'이 좀 특이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받게 됩니다. 어쨌서, 가해자의 성격만이 이해의 대상이 됩니까? 어쨌서, 피해자의 피해는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습니까? 가해자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 역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말입니다. 사실, 가해자의 의도는 너무나 많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자체가 의심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피해자의 피해가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간다라는 말로 피해자의 피해를 의심했을지언정,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는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의도는 '그런듯이 아니었어'라고 해명하고, 이해받고 끝나겠지만, 가해자가 의도치 않았던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자신의 불쾌함, 고통, 분노, 피로움 등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그냥 삭여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의도'를 생각하라는 것은, 피해의 경험들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게 하고,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별일도 아닌걸 가지고, 호들갑 떠는 '과민한 사람'으로 찍힐 것입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행동'했던 것들은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스토킹의 경우) 구애하기 위해서, "집앞에서 기다리기", "계속 전화하기", "지점도 록 메일보내기", (성폭력사건의 경우) "언어"적 성폭력, 강제적인 "성관계"등등... 분명히 가해자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의도적으로", "일부로", "고의로" 성폭력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인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져야 한단 말인가요? 가해자의 "행위"는 가해자의 것이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고통에 대하여 분명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떠올리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마 이쯤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분명 쏟아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양갈음을 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물어보죠. 가해자의 의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가해자가 말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거짓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는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피해자를 비이성적이고, 물지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질문일 뿐입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 '경미한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대부분 "무시하고", "세상은 원래 그래"하고 자신의 기분나쁨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경험(불쾌함, 기분나쁨, 분노 등)이 인정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왜,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인정되는 잘못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양갈음을 하는게 훨씬 쉽고 간편한 것 아닌가요? 결국 위와 같은 질문은 가해자중심의 상식일 뿐입니다.

▶ 여자가 얼마나 이쁘길래... 얼마나 이쁘냐?

▶ 스토키가 계속 스토킹하는데는 피해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대처를 잘 못해서, 결국 학생

회에 의존하기 까지 하는 “의존적이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사례: 첫 번째의 경우는 “철학과 스토킹사건 비대위”의 공개적 해결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보였던 반응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철학과 스토킹사건 비대위”의 비대위공개사이트에 올라와있던 반응이었습니다.

설명글: 이 두가지 경우, 스토킹이 스토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자가 이빠서”, 스토킹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여자가 나약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스토킹이 스토킹을 한 이유는 모두 “여자에”책임이 됩니다.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어째서 스토킹한 스토킹의 행위가 문제였다고, 스토킹이 얼마나 따라다니고, 괴롭혔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묻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 사실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자가 야밤에 싸돌아다녀서, 여자가 이상한 옷을 걸치고 있어서, 여자가 유혹해서” 성폭력을 한거다라는 말들 말입니다. 왜 피해자의 행동거지가 이런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까? 사건의 원인은 분명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까지 가해자만 이해 받아온 가해자중심의 상식은 버려져야만 합니다. 바로, 문제/사건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결과, 문제/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려는 형태의 문제제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등장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 친분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게 더욱 심해집니다. “왜 더 저항하지 않았나?”, “왜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나?”, “왜 친분관계도 거부하지 않았나?”라는 말들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피해자를 더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일 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문제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친분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문제를 느끼거나, 불편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왜 즉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사례: 신방과 99노망 MT사건이후 공청회를 열었을 때, “사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쏟아졌던 질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상호간에 친분관계가 존재했던 경우입니다.

설명글: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한 개인이 상대방과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실상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가 동등하다는 전제위에서 가능한 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가 동등했다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동등했다면, 성적 권력관계 자체가 녹아있는 농담들, 문화적인 행태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문화가 일상에 만연해 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원인인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봅시다. 성폭력사건에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고,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에게 “너 왜 저항하지 않았니?”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질문이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상

황에 놓이게 되고, 이 때문에, 모순적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아닐까라는 혼란감, 내가 '정말' 과민하게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 내가 불쾌하다고 하면 분명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할텐데, 그 불쾌함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까라는 답답함, 나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빠른 두뇌회전을 통한 예상,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인간관계가 꼬여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내가 과격한 예로 찍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분위기 깨는 것이 아닐까라는 무서움 등등...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며,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가! 또한 이를 드러내려할 때, 얼마나 많은 용기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에 대해 용기는 북돋아주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문제제기했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도 이미 우리주변에는 수두룩한데, 이것은 그나마 소통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직접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금상첨화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당장 문제를 제기해달라라고 부탁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문제를 제기해야 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묻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곧 "너(너희)가 그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별 생각없이 그냥 놀았던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데는 너희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의미이며, 결국, 피해자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이쯤되면, 너무 지겹지 않나요?)

▶ 가해자도 사회구조안에서의 희생자다!

설명글: 허억~. 이런 말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폭력, 혹은 스토킹사건에서 가해를 했던 그 당사자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요? 피해자의 "피해"는 정말 누가 책임지란 말입니까! 그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구조는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구조'가 '허상'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가부장제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행위자"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켰던 바로 그 가해자는 가부장제 사회구조를 지속시킨 "공범"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구조를 재생산시킨 그 가해자는 해당사건에 대해 책임 져야하며,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도 희생자다"라고 주장한 순간,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